

사회복지시설 탐방 30 선단사랑의집원장 박희실

방과후 어린이들의 편안한 쉼터



선단사랑의집은 지역아동센터로 방과후 어린이들의 보호와 공부를 돕고 있으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인정과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인인 원장 박희실 목사)

“단편편을 만난 아이들이라든 아이들의 눈과 귀가되어 보살핌니다” 포천시 선단동 선단초등학교 후면에 위치한 선단사랑의집은 올해 9월 설치된 시설로 방과후 마땅히 오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무료로 보호하고,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에 실망한 상태라며 “하지만 항상 희망을 안고 살아왔듯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6군단 사병으로 조직된 신우회 회원들이 6~7명 정도의 꾸준히 방과후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 생활훈련의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이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수혜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역아동센터란 빈곤지역(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지역, 광산지역)에서 한부모 가정의 아동, 맞벌이가정의 아동, 결식·방임·방치되는 아동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선단사랑의집은 의정부와 양주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박희실(45) 목사가 2년전 포천에 정착하면서부터 미션고 시설로 운영해 오던 곳이다.

과 사랑의 교회 목사로서 목회활동과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하고 있다. 선단사랑의집은 현재 23명의 어린이가 입소해 있으며, 박 목사와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은 평상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생활하고 있지만,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박 목사는 “이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의 70%는 편부나 편모가정에 처해있고, 나머지 30%는 맞벌이 부모를 두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좋족해 학원이나 기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단사랑의집은 최근 신고시설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석구석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선단사랑의집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6군단 진군교회(군목 최민식)에서 아이들의 방과후 공부를 지도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찾고 있다. 박 목사는 “월요일에는 영어, 수요일에는 한자와 성경공부를

포천 심터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재충전의 비밀 '삼매'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하고 내려왔다. 그 두 사람에게 등산을 하면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올라갔지만 특별히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사람은 “이제 겨울의 문턱이라 그런지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 낙엽을 밟으며 오르는 맛이 늦가을 등산의 맛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다 산을 올라갔다 왔지만 산과 하나가 된 사람은 후자일 것이다. 무엇인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삼매이다. 삼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삼매는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다.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 때 모든 것을 잊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 말 뜻은 모든 것을 잊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몸과 하나가 되는 휴식일 수도 다른 무엇가에 몰두하는 재충전의 여가

활용일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하나가 되는 삼매를 느낄 때 사람들은 활력을 찾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삼매는 언제 무엇을 하든 느낄 수 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행위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하다가 쉬는 식사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삼매이다. 별 생각 없이 입으로 음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씹으면서 하나하나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할 때 삼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되면 식사시간 자체도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선(禪)이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 힘든 시기에 가장 간단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은미의 쫓소 사랑이야기 10

인터뷰 이동 東和달마원 임영재 원장

孝心이 낳은 氣달마도



“한 번 말을 했으면 행동과 똑 같아야 한다(言行一致). 말과 행동을 같이하고 늘 처음 같은 마음(初心)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김순희(43·내촌면 내리) 내촌면 지부장을 만났다. “내가 밝게 웃으며 생활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환해지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나름대로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여 노인들을 위해 한글공부는 물론 장애인공동체를 후원하는 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지부장은 늘 환한 얼굴이다. 우체국보험 관리사 경력 5년의 김 지부장은 우체국 안보 보험 무료가입으로 2명이 혜택을 입게 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된다고 강조한다. 제1회 포천사랑발달장애대회에서 입상하여 글쓰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독바위 문화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김 지부장은 서울체신청 홍보국장 일도 맡고 있다. 내촌초등학교 40회 졸업생으로서 당시에는 내촌중학교가 없어 광동중학교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한 때였을 때 여러사람들의 뜻을 모아 내촌중학교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동중학교로 나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예교사로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 지부장은 ‘내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내촌사랑에 나설 계획이라고 귀뜸한다. 특히 김 지부장은 내촌초등학교와 내촌중학교의 연결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내촌지역을 통합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포천신문도 이 일을 함께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이 공부하여 내촌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김 지부장의 모습에서 내촌발전의 희망을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친이 중풍으로 세 번 쓰러져 회복을 위해 이듬해 장암리 동화사에서 기도하며 요양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달마도는 모친의 병을 회복시켜 주기에 충분했다는 게 임 원장의 설명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달마도를 경남 고성에서 두 해다가 어머니 방에 걸어 두었더니 점차 병이 나아지는 것이다. 이때 구한 달마도의 효력은 없어지고 이제 임 원장이 직접 그린 달마도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과 글씨 공부 한 번 안해 본 임 원장이 달마도를 그리게 된 이유가 분명치 않고 말하기 수색의 과정을 차단하는 氣달마도의 역할을 해 내는 사실에 임 원장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임 원장은 그림을 사람의 기가 달마도에 전해져 그 달마도가 수백의 파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화제의 인물 명문이동숯불갈비 류연준 대표

남몰래 봉사활동 화제



우리사회에는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사랑 사는 사회의 진한 정을 느끼게 된다.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서 명문이동숯불갈비를 운영하는 류연준(59)대표는 영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3대와 15인승 2대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행사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학교행사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BBS 포천시지부 부지부장, 영북종합고등학교 운영위원, 영북면생활안전협의회 위원 등 20여 가지 직책을 맡아 봉사활동을 펴 온 류 대표는 버스 지원행사에 큰 아들과 기사와 함께 대형버스 3대를 몰고 나선다. 주로 학생과 경로당 노인들이 봉사대상이다. 류 대표는 이곳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했으나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오직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로 살다보니 남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남을 돕고 산다는 게 보람이다.”라고 밝히는 류 대표는 과거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거지 50여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해 준 적도 있다고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세상의 진면목을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김순희 · 내촌면지부장

言行一致 생활신조 삼아 적극 노력 내촌초-내촌중 연계시스템 지역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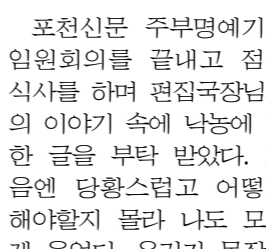
“한 번 말을 했으면 행동과 똑 같아야 한다(言行一致). 말과 행동을 같이하고 늘 처음 같은 마음(初心)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김순희(43·내촌면 내리) 내촌면 지부장을 만났다. “내가 밝게 웃으며 생활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환해지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나름대로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여 노인들을 위해 한글공부는 물론 장애인공동체를 후원하는 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지부장은 늘 환한 얼굴이다. 우체국보험 관리사 경력 5년의 김 지부장은 우체국 안보 보험 무료가입으로 2명이 혜택을 입게 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된다고 강조한다. 제1회 포천사랑발달장애대회에서 입상하여 글쓰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독바위 문화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김 지부장은 서울체신청 홍보국장 일도 맡고 있다. 내촌초등학교 40회 졸업생으로서 당시에는 내촌중학교가 없어 광동중학교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한 때였을 때 여러사람들의 뜻을 모아 내촌중학교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동중학교로 나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예교사로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 지부장은 ‘내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내촌사랑에 나설 계획이라고 귀뜸한다. 특히 김 지부장은 내촌초등학교와 내촌중학교의 연결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내촌지역을 통합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포천신문도 이 일을 함께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이 공부하여 내촌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김 지부장의 모습에서 내촌발전의 희망을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권경자 · 이동면지부장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자” 인종은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 보도해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를 생활신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권경자(43) 이동면 지부장을 만났다. 권 지부장은 “포천신문이 매주회 발행되는 신문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면지역의 교민이기도 한 권 지부장은 주변의 이웃을 보살피는 이동면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며 서로서 돕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기자가 되었으니 이름만 기자가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년째 이동면 장암리에서 펜션운영점 ‘뜨레모아’를 운영하고 있는 권 지부장은 영종농협에 근무하는 남편 월급보다 많은 수입을 올린 적도 있으나 최근 연세가 좋지 않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웃는 얼굴에 찢 못 뺄는다”는 말이 있듯이 권 지부장은 늘 얼굴에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 집안에서 남편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하면 길게 가지 않는다고 한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동면지부 활성화 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신문이 인종은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를 많이 전달하기를 기대하며 제보에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이맘 추수의 배추 650포기 기증은 칭찬할 일이며 본받아야 할 고마운 마음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김장 담그기에 적극 나서는 주부명예기자의 힘은 막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삶의 희망 찾아준 쫓소 이야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 임원회의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며 편집국장님과 이야기 속에 낙농에 대한 글을 부탁 받았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나도 모르게 웃었다.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으니 낙농에 대해 글을 쓰면 여러 사람들이 낙농에 대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의를 하였다.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목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 송아지 탄생에 대해 글을 쓰고 아이들 공부방 선생님께 보여드리자 선생님께서 글이 간결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글이 연재를 하게 되었다. 주부로서 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지만, 나에게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용기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미의 쫓소 사랑이야기는 목장을 하면서 겪어온 일상적인 생활이다. 글을 쓰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흥 아빠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며 목장을 시작한지 15년, 막내 용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15년은 목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을 쓰면서 연흥 아빠의 더욱 더 책임감 있는 모습에 너무 고맙다. 예전에는 술을 좋아해 저녁 첫 소 시간이 불규칙하여 작업도 5등급까지 받아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 목장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유도로 규칙적으로 하고 체세포도 1등급 생애에 대해 글을 쓰고 아이들 공부방 선생님께 보여드리자 선생님께서 글이 간결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글이 연재를 하게 되었다. 주부로서 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지만, 나에게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용기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미의 쫓소 사랑이야기는 목장을 하면서 겪어온 일상적인 생활이다. 글을 쓰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흥 아빠와 결혼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수원산 지역에 자리잡은 임마누엘 중증요양시설 '생수의 집'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으로 준공을 축하했다.

“포천에 새 보금자리 마련했어요”

임마누엘 중증요양시설 생수의 집 준공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재활원(이사장 김경식 목사)은 지난 17일 오후2시부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수원산 자락 생수의 집 운동장에서 포천 임마누엘 중증요양시설 '생수의 집' 준공식을 개최했다. 생수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재활원 김경식 목사가 3년전 강원도 인제에 중증요양시설을 개원한 후 입소자가 많아 위치를 물색하던 중 서울인근이면서 같은 재단의 시설인 '포천시 고평리두레마을'이 위치한 포천시에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의 집 관계자 및 이봉춘 군내면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행정자치 위원장 등 포천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으며, 조남희 목사(충은교회)의 사회로 목도, 찬송, 기도, 찬양, 축사 및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완공된 생수의 집은 지상4층, 연면적 1,690.24㎡(511.3평)으로 지난 3월에 착공, 9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국·시비 9억8천4백만원과 자부담 6억7천6백만원 등 총 16억6천만원이 소요됐다. 요양시설은 장애인 56명이 입소할 수 있고, 50여명의 직원이 근무

하게 되며, 현대식으로 지어진 전 원복시설로 주위가 수원산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이 시설은 이날 준공식을 가진 만큼 장애인 이동 차량, 텔레비전, 냉장고, 이불, 의류, 휠체어, 주방기구, 생활품 등 각종 생활용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공식에서 김경식 목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는 총체적으로 불안해 장애인들이 설 곳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설 곳도 갈 곳도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

는 장소를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장애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재활원은 1983년 서울시 도봉구 안골부락 천막집에서 장애인 10명으로 설립됐으며, 임마누엘의 집, 희망의 집, 임마누엘보조작업시설, 기쁨어린이집 보육시설 수탁, 포천시 고평리두레마을 주간보호시설 수탁 및 생수의 집까지 6개의 장애인 및 보육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생수의 집 후원 : 우리는행 1005-200-973909(예금주 임마누엘재활원)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